

KIA 타이거즈 공수 극대화? 터커의 1루수 변신에 달려있다

수비 포지션에 큰 변화 예고...외야진 수비 강화

나지완·김호령·최원준·이창진 등이 주전경쟁

터커의 1루 변신은 성공할까? 신축년을 맞이한 KIA 타이거즈의 수비 포지션이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 중심인물은 외국인타자 프레스턴 터커(31)이다. 외야수(우익수)에서 1루수로 변신을 추진한다.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스프링캠프를 지켜보아야 한다. 터커가 1루에 안착한다면 공수 극대화로 이어진다.

터커의 공격력은 리그 최상급이다. 작년 타율 3할6리, 32홈런, 113타점, 100득점을 올렸다. 팀 역대 외국인타

자 최초로 '3할 타율-30홈런-100타점'을 올렸다. 두둑하게 연봉도 끌어올려 105만 달러에 재계약을 했다. 2년만에 100만 달러를 넘기는데 성공했다.

아쉬운 대목은 수비력이었다. 우익수로 뛰어난 수비를 보여주지 못했다. 타구판단력, 느린 발로 인한 수비범위, 어깨 등에서 후한 평점을 받지 못했다. 더욱이 좌익수 나지완, 중견수 최원준도 A급 수비수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KIA의 외야진은 10개 구단 가

운데 하위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맷 윌리엄스 감독은 결단을 내렸다. 터커를 1루수로 변신시키겠다는 것이었다. 터커와 면담을 했다. 터커는 대학시절 1루수 경험이 있었다면서 변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터커의 1루행은 여러가지 노림수가 있다. 외야진의 수비를 강화하고 공격력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터커가 빠진 외야는 나지완, 김호령, 최원준, 이창진 등이 주전경쟁을 벌인다. 윌리엄스 감독은 김호령을 기용하고 싶어한다. 중견수로 리그 최상급의 수비력을 갖추고 있다. 김호령을 중견수로 박고 이창진과 최원준을 좌우 코너 외야수로 기용할 구상을 하고 있다. 최원준은 수비가 좋아졌고, 이

창진도 안정된 수비력을 갖추고 있다. 세 선수가 포진한 외야는 훨씬 견고해질 수 있다. 더욱이 세 선수 모두 발이 빨라 기동력 야구도 펼칠 수 있다. 물론 새 외야진 구상에는 김호령의 타격이 가장 큰 변수이다. 2할7-8푼대의 타격을 해야 주전 가능성이 있다. 나지완은 작년 풀타임 좌익수였으나 새해에는 후배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 자칫하면 출전 경기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터커의 1루행은 유민상과 황대인의 백업을 의미한다. 좌타 유민상과 우타 황대인은 대타요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 두 선수도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윌리엄스 감독은 황대인을 거포로 키



루수 변신은 여러가지 효과를 내포하고 있다. 황대인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인지도 관련포인트이다. 이란 점에서 터커의 1 김미희기자

김하성 농친 보스턴...지역언론 "추운 날씨 때문에"

보스턴 레드삭스가 김하성(26·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매력적인 제안을 하고도 영입에 실패한 것이 날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스턴 지역 매체 보스턴글로브는 4일(한국시간) "보스턴은 김하성에게 '강력한' 계약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김하성은 4년 2800만달러를 보장 받고 샌디에이고와 계약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매체는 "김하성이 추운 날씨에 대한 걱정 때문에 서부 해안 팀을 선호했기 때문"이라며 "샌디에이고 같은 도시를 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보스턴의 날씨가 야구하기 정말 불편할 때는 시즌 내내 며칠이 채 되지 않는다"고 아쉬

움을 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도시인 샌디에이고는 1년 내내 쾌적한 기후와 화창한 날씨를 자랑한다. 반면 보스턴은 미국에서 추운 지역으로 꼽힌다.

메이저리그(MLB) 이적 소식을 주로 다루는 MLB 트레이드루머스는 해당 기사를 인용해 "파란 하늘과 따뜻한 햇살은 김하성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보스턴 2루수 자리에 확고한 주전이 없는 상태라 김하성이 보스턴과 계약했을 경우 주전 기회를 잡기가 더 쉬웠을 수 있다. 샌디에이고는 유격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3루수 매니 마차도 등이 버티고 있어 내야진이 탄탄하다.

MLB 트레이드루머스는 "젊은 김

하성은 리빌딩에 힘쓰는 보스턴에 딱 맞는 자원이었다"면서도 "김하성은 (2020시즌 주전 2루수로 뛴) 제이크 크로넬워스와 경쟁해야 하지만, 강력한 선발진을 새롭게 구성한 샌디에이고는 2021시즌 가장 흥미로운 팀이다. 매일 벤치에 앉아 경기를 지켜보다도 샌디에이고가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샌디에이고는 이번 스토브브리지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트레이드를 통해 다르빗슈 유, 블레이크 스넬을 영입했고, 대어급 내야수로 분류됐던 김하성까지 잡았다. 전력 보강에 성공한 샌디에이고는 단숨에 우승 후보로 올라섰다는 평가다.

뉴시스

김주형, 美 골프채널 선정 2021년 기대주 '톱10'



김주형(19)이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채널이 선정한 2021년 기대되는 선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김주형은 4일(한국시간) "지금 대부분의 골프 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2021년 큰 발전을 이뤄 친숙한 이름이 될만한 후보 10명을 소개한다"며 유망주 10명을 선정했다. 순위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세계랭킹 139위인 김주형은 10명 가운데 9번째로 언급됐다. 김주형에 대해 골프채널은 "만 18세의 나이에 벌써 프로에서 4승

을 거뒀다. 지난해 PGA 챔피언십에서 메이저대회 데뷔전을 치렀으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에도 세 차례 출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현재 김주형이 만화 '톰아스와 친구들' 주인공을 따라 영어 이름을 '톰'이라고 정한 것이 가장 잘 알려진 부분"이라며 "올해 투어 대회에 몇 차례 나오면 축하를 받을 일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형은 지난해 7월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군산CC 오픈에서 18세21일로 정상에 올라 KPGA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운 선수다.

2019년 11월에는 아시안투어 파나소닉오픈에서 우승했고, 같은 해 아시안투어 하부투어에서는 3승을 수확했다.

지난해 PGA 챔피언십에서 첫 탈락한 김주형은 9~10월 PGA 투어 세이프웨이오픈, 코랄레스 폰타리조트 & 클럽 챔피언십, 더 CJ컵에 출전해 경험을 쌓았다.

그는 코랄레스 폰타리조트 & 클럽 챔피언십에서는 공동 33위에 오르기도 했다.

골프채널이 선정한 2021년 기대주 10명에는 교포 선수인 이민우(23·호주)와 저스틴 서(24·미국)도 포함됐다.

뉴시스

'샌디에이고 이적' 다르빗슈, 눈물 쏟은 진짜 이유

부진할 때 진심으로 다가온 컵스 담당 기자와 작별 때문



트레이드를 통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유니폼을 입은 일본의 메이저리거 다르빗슈 유(35)가 입단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쏟아냈다.

다르빗슈가 눈물을 흘린 진짜 이유는 부진했던 시절 손을 잡아 준 컵스 담당 기자와의 작별 때문이었다.

일본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츠닛폰은 3일 "다르빗슈가 샌디에이고 입단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린 이유는 감정적인 교류가 있었던 컵스 담당 기자와의 이별하기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샌디에이고는 지난달 30일 트레이드를 통해 다르빗슈를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샌디에이고는 우완 투수 잭 에이버스와 유망주 4명을 컵스로 보내고, 다르빗슈와 포수 빅터 카라테리니를 영입했다.

지난 1일 온라인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다르빗슈는 회견 도중 눈물을 흘렸다.

당시 다르빗슈는 "2018년 첫해에 시카고 컵스에 전혀 도움이 안됐다.

가질 수 있었다. 눈물도 그런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다르빗슈의 눈물샘이 터진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스포츠닛폰에 따르면 다르빗슈가 눈물을 흘리게 만든 주인공은 WSCR-AM의 브루스 랜디 기자다.

랜디 기자는 회견 도중 "당신이 떠나면 외로워질 것 같다. 시카고에서의 경험은 어땠나"라고 질문했고, 다르빗슈는 "조금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화면에서 시선을 돌리고 눈물을 흘렸다.

다르빗슈는 "브루스씨는 내가 컵스 2년차 중반까지 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항상 내게로 와서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잊지 못할 기억"이라고 말했다.

2018시즌 초반 오른팔에 통증을 느낀 다르빗슈는 그해 5월29일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았고, 특별한 부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2018년 6월25일 오른쪽 팔 부상 이후 처음으로 싱글A에서 재활 등판에 나선 다르빗슈는 5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다. 스포츠닛폰은 "당시 대부분의 현지 기자들이 다르빗슈의 메이저리그 복귀가 정해졌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랜디 기자는 다르게 봤다. 그는 "6월25일 싱글A 재활 등판을 취재하기 전까지 다르빗슈가 너무 예민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나 다르빗슈는 100%가 아니라고 수차례 말했고, 뭔가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떠올렸다.

다르빗슈는 "랜디 기자의 말투에서 나의 말을 믿어준다는 느낌이 들었다. 선수 이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내 말을 들어줘 기쁘고 감사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컵스에서 동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눈물이 나왔다"며 "내가 부진했을 때에도 팬들은 나와 내 가족들에게 응원을 보냈다"고 눈물을 흘린 이유를 설명했다.

2012~2017년 텍사스 레인저스와 LA 다저스에서 뛴 다르빗슈는 2017시즌을 마치고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컵스와 6년 최대 1억5000만달러에 계약했다.

다르빗슈는 컵스로 이적한 첫해인 2018년 1승 3패 평균자책점 4.95, 2019년 6승 8패 평균자책점 3.98에 그쳤다.

'떡튀'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던 다르빗슈는 지난해 화려하게 부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팀당 60경기만 치른 2020시즌 12경기에 등판해 8승 3패 평균자책점 2.01의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투표에서도 2위에 올랐다.

부진을 털고 거액을 투자한 팀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차라 팀을 떠나게 돼 다르빗슈가 미안한 마음을

호날두, 2골 1도움 폭발...세리에A 득점 단독선두

유벤투스, 우디네세 4-1 완파하고 리그 5위로



유벤투스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의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1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 15라운드 우디네세와의 경기 전반 31분 팀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있다. 호날두는 새해 첫 경기에서 2골 1도움의 맹활약을 펼치며 팀의 4-1 승리를 이끌었다.

치른 우디네세와의 2020~2021시즌 세리에A 15라운드 홈경기에서 4-1로 승리했다.

지난 라운드 피오렌티나에 0-3 충격패를 당했던 유벤투스는 이날 대승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며 승점 27점을 기록, 리그 5위로 올라섰다.

한 경기를 덜 치른 가운데 선두 AC 밀란(승점 37)과는 승점 10점 차다.

반면 2연패를 당한 우디네세(승점 15)는 리그 13위에 머물렀다.

해결사는 호날두였다. 전반 31분 아르만도의 발은 호날두가 오른발 슈트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어 후반 4분엔 호날두가 정확한 패스로 페데리코 키에사의 추가골을 도왔다.

호날두는 후반 25분 한 골을 더 추가하며 이번 시즌 정규리그 득점을 14골로 늘렸다.

세리에A 득점 선두인 호날두는 2위로 로멜루 루카쿠(인터밀란·12골)와의 격차를 2골로 벌였다.

유벤투스는 후반 45분 우디네세의 마르틴 지겔라르에게 만회골을 허용했지만, 추가시간 파울로 디발라의 쐐기골로 4-1 완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뉴시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가 새해 첫 경기에서 2골 1도움으로 맹활약하며 소속팀인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유벤투스의 승리를 이끌었다.

유벤투스는 4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의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